

2004 중국도서관학회 연차대회 참관기



이은철*

이 글은 2004년 7월 24~25일에 걸쳐 중국 소주(蘇州)에서 개최된 중국도서관학회 연차대회 참관기이다. 중국도서관학회의 초청을 받아 우리 협회는 한상완 부회장, 이경구 사무총장, 이은철 기획위원장이 참석하였다. 그 동안 양 기관은 상호 교류협정에 의해 격년으로 상대방 국가 협회(학회)의 임원을 초청하여 상호교류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를 거듭해 왔다. 올해는 2006년 IFLA 서울대회를 앞두고 대회의 홍보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국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 -편집자 주-

◆ 7월 23일 인천 발 상해 도착

상해가 가까워 오면서 비행기 창 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중국의 동해가 두 가지의 색깔로 구분되어 있다. 쪽빛의 바다와 누런 황토 빛의 바다로 말이다. 중국의 장강(長江)에서 흘러들어 온 강물로 인함이다. 장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강물의 양이 얼마나 많기에 바다의 색깔을 저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말인가? 몇 년전 장강을 배로 건넌 적이 있었다. 강 이편의 둑에서 저편의 둑을 가로지르는 도하(渡河)였다. 강이 아니었다. 황토 빛의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았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간간이 지나가는 화물선외에는 수평선 밖에 보이지 않았다. 황토 빛의 강물만 아니었다면 망망대해의 한가운데 떠 있다는 착각을 했으리라.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었지만 50여분이 소요되었던것 같다. 그야말로 거대한 장강은 중국의 젖줄로 충분하다. 동행하였던 한상완 부회장의 말을 빌리면 장강으로부터 흘러들어 온 토사로 인하여 우리 서해안의 국토가 미세하나마 해마다 넓어진다고 하니 우리에게도 별로 나쁘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중국의 땅이 장강에 의해 조금씩 침식되어 우리 땅으로 편입되다 보면, 결국 우리 땅이 중국보다 넓어지는 것은 아닐런지 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해 보았다.

잠시 후 북한의 지도자가 '천지개벽'이라는 표현으로 도시의 변화와 발전에 놀라와 했다는 포동(浦東)지구 에 건설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비행기에서 바라다 본 포동공항의 외양은 매우 우람하였다. 그러나 그 속은 그렇지 않았다. 내부의 설비는 어딘가, 무엇이 빠져있는 듯한 허전하고 허술한 느낌을 지을 수가 없었다. 귀국 시 포동공항에서 느꼈던 사실이지만 그곳의 냉방시설로는 무더움을 식혀 줄 수 있는 쾌적한 공항과는 거리가 매우 멀었다. 내부의 천정이 매우 높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

* 협회 기획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ecllee@skku.edu

족한 것 같다. 다행히 우리 일행은 한 쪽 편에서 냉기를 공급하는 지점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땀을 식힐 수는 있었지만, 대다수의 여행객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 같았다. 공항의 내부가 너무 더우니 우리의 대한항공이 예정된 탑승시간을 앞당겨 시원한 비행기 안으로 탑승하도록 해 주었으니 고마울 수 밖에.

중국도서관학회 국제교류처 직원인 楊仁娟(Yang Renjuan) 선생과 연결의 조선족 출신인 통역 겸 가이드인 趙紅梅양의 안내로 상해도서관으로 향하였다. 시내로 향하면서 차창을 통해 바라 본 포동지역의 모습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2년 전의 모습과 비교해 보니 그렇다.

상해도서관에 도착하니 IFLA의 이사이며, 상해도서관장인 吳建中(Wu Jianzhong)박사가 반가이 맞아 주었다. 2006년에 우리나라가 IFLA 세계대회의 개최지로 선정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분이기도 하다. 한상완 부회장과는 여러 곳에서 만나 우의를 다져오던 분이었기에 더욱 친숙한 분위기가 되었다. 상해도서관이 외주를 맡긴 꽤 큰 규모의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였다. 도서관 이용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듯 하였다. 당연히 식당운영의 이익금은 도서관과 외주업체가 분배하고, 도서관은 그 이익금을 도서관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곳곳에서 철저한 자본주의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대학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대학들은 대학 내에 연구소와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 곳에 종사할 연구진과 인력을 공급하고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곳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당연히 대학과 기업이 적절히 배분하고 있는 것이다.

오찬 중 화제의 중심은 2006년 IFLA 서울대회였다. 우리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중국의 협조, 특히 많은 대표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에 흔쾌히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해 주었다. 중국은 이제 세계 도서관계에서도 그 힘을 과시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2004년 IFLA대회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대표단(약 120여명)이 참석한다고 한다.

오찬이 끝난 후 우리 일행은 상해도서관을 둘러보았다. 건물의 규모, 장서량, 설비, 인력 등은 그냥 지나칠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의 도서관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마치 우리의 재래시장 같은 분위기가 도서관의 곳곳에서 목도되었다. 이용자가 넘쳤다. 평일에는 8,000여명, 주말에는 10,000여명의 이용자가 도서관을 찾는다고 한다. 무척 고무적인 모습이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한 인민들의 물결이 도서관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도서관들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이용자들이 넘치는가? 궁금했는데, 확인해 볼 기회를 놓



▲ 상해도서관장실에서. 왼쪽부터 이경구 사무총장, 한상완 부회장, 吳建中 관장, 이은철 기획위원장, 楊仁娟 중국도서관학회 국제교류 담당원

친 것이 아쉬웠다. 이번 방문 기간동안 여러 곳의 도서관을 방문하였지만 이러한 현상은 상해도서관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찬 후 중국도서관학회 창립 25주년과 소주(蘇州)도서관 설립 90주년을 기념하는 2004년 중국도서관학회 연차대회가 개최되는 도시인 소주로 향하였다. 상해에서 소주까지는 자동차로 3시간여가 소요되었다. 소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관광도시이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도시이지만 간략히 소개하려고 한다. “上有天堂下有蘇杭(하늘에는 천당, 땅에는 소주, 항주가 있다)”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서정이 풍부한 물의 도시이다. 당나라 때의 많은 시인들이 물이 많은 소주의 거리를 노래하였다. 시내에는 고전풍의 정원과 운하가 많아 옛날부터 “정원의 도시” 또는 “동방의 베니스”로 불리어 왔다. ‘졸정원(拙政園)’, ‘유원(留園)’과 같은 개인 부호의 정원(저택)이 있으며, 중국판 피사의 사탑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이 47.5m인 7층 8각의 탑이 오랜 풍상(風霜)으로 약 15도 정도로 기울어진 ‘호구탑’ 등이 대표적인 볼거리이다. 예부터 중국에는 장강의 남쪽(강남으로 불리워지고 있음)에 위치하고 있는 상해, 소주, 항주 등과 같이 자연풍광이 뛰어난 도시에 부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에 이러한 정원들이 곳곳에 남아있게 되었다.

저녁에는 중국도서관학회 연차대회의 개막에 앞서 중국도서관학회 이사장이며, 국가 문화부 副部長(차관)인 周和平(Zhou Heping)씨가 대회 참석 주요인사들을 초청한 만찬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중국도서관학회의 임원, 중국 각 성의 도서관학회장, 주제 발표자, 교수 및 한국,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서 참석한 외국인 사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중국도서관학회는 이사장을 국가의 문화부 부부장이 겸임하게 되어 있으며, 학회의 주요 임원들은 선출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도서관학회는 명칭과는 달리 순수 학술단체는 아니며 우리나라의 도서관협회와 동일한 성격의 단체이다. 각 성(省)의 도서관학회를 산하 단체로 가지고 있으며, 개인, 도서관 등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들의 회비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다.

◆ 7월 24일 중국도서관학회 연차대회 참석

오전 9시에 소주회의중심인민대회당에서 연차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곳은 800여석이 마련되어 있는 강당으로 참가 대표들(등록인원 약 1,000명)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하였다. 많은 참가자들이 로비와 복도에서 있을 정도였다. 로비에는 중국 각 성(省)의 도서관학회를 소개하는 현수막이 빼곡이 설치되어 있어, 마치 참가 대표들을 환영하는 것발처럼 느껴졌다. 대회장은 마치 텔레비전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중국의 인민대회회장의 연단을 보는 듯 하였다. 단상에 20여명의 대표들이 일렬로 자리하고 있으며, 붉은 천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 연단의 배치와 장식이 단하에 앉아 있는 참석자들을 압도하는 듯 하였다. 중국도서관학회의 초청을 받은 외국인사들을 대표하여 우리 부회장이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도 있었다. 이 자리를 통해 2006년 서울 IFLA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기도 하였다. 중국어로 제작한 서울대회 홍보물을 개회식장과 전시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소주도서관에 비치하여 많은 중국 도서관인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하였다.

중국도서관대회의 일정은 대회가 개막되기 전일(23일) 오후에 이사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가 개최되며,



▲ 중국도서관학회 2004 전국도서관대회 개최식장

24-25일에 걸쳐 주제발표, 각 분과별 발표 및 도서관 기술 및 관련 자원 전시회가 개최되었으며, 26일에는 소주 대학도서관과 상숙(常熟)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 참관 및 관광으로 되어 있었다. 개최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과회의 및 전시회는 최근에 신축한 소주도서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는 50여개로 도서관 관련 정보기술 및 출판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회는 24일 개최식에 이어 오전과 오후에 걸쳐 중산대학 信息管理學科(문헌정보학과) 교수 겸 도서관장인 程煥文(Cheng Huanwen) 박사의 “20세기 중국도서관 사업의 회고와 21세기의 전망”의 주제발표를 포함한 6개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 다음 날인 25일에는 총 8개의 분과에서 49개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그 중 특기할만한 점은 8개의 분과 중 3개의 분과가 “도서관의 디지털화와 현대화”를 대주제로 각각 소주제를 발표, 토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발표, 토론되어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오에는 중국도서관학회 부이사장이며 중국국가도서관 연구원인 孫蓓欣(Sun Beixin)씨를 비롯한 국제교류처 직원들과 한국도서관협회와 중국도서관학회의 교류증진에 관한 회의가 오찬을 겸하여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양국 협회 간의 교류가 상대국의 도서관대회를 참관하는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어 더욱 내실있는 교류가 되기를 상호 희망하였으며, 이를 위해 상호 교류시 학술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동북아 지역의 도서관 분야 교수, 연구원, 실무자, 학자 등이 상호 관심사를 연구, 발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2006년 IFLA 서울대회와 관련하여 중국도서관학회는 서울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많은 대표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협회는 대회에 참석하는 중국 대표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 중국도서관학회 주최 오찬장에서. 왼쪽부터 郭斌, 북경 서성구 도서관장, 이은철 기획위원장, 楊仁娟 학회 국제 교류 담당원, 한상완 부회장, 孫蓓欣 중국국가도서관 연구원, 이경구 사무총장, 湯更生 학회 사무국장

이어 저녁에는 대회에 참석한 각 지역의 학회 임원, 도서관장 등 300여명을 초청한 만찬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같은 테이블에 있었던 사천성(四川省)과 신장, 위구르 자치지구의 도서관학회 임원들로부터 무척 고무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들이 근무하는 지역의 도서관인들도 2006년 서울대회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예년의 IFLA 대회 참석인원이 2-3명 정도였으나, 서울대회에는 10여명 이상이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IFLA대회에 참석하는 중국 대표단의 전체 인원이 120명 정도라면 서울대회

에 500여명 정도의 대표가 참석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각 성의 도서관학회들을 대상으로 서울대회에 대한 홍보활동을 조직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2박 3일, 혹은 3박 4일 동안 기차를 타고 소주의 중국도서관학회에 참석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점이지만 그들에게는 그다지 대수로운 일이 아닌 듯 하였다. 그러나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중국에 도착한지 이틀이 되었다. 중국 대륙의 열기가 우리들의 혼을 쏘옥 빼어놓는 것 같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이 지역의 기온은 연일 37~38도이다. 가이드에 의하면 기온이 40도가 넘으면 법령에 의하여 중국의 생산공장과 노동자들은 조업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공식적인 일기예보에는 38도를 넘기지 않는단다.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의 기온과 체감온도는 40도를 훨씬 넘어섰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루에도 3-4회씩 길거리 사우나(?)를 즐길 수 있었으니 이 어찌 새로운 경험이 아니던가!

◆ 7월 25일 강소성(江蘇省)도서관학회 및 남경(南京)도서관 방문

아침에 소주를 출발하여 남경으로 향하였다. 약 3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우리 일행을 태우고 다니는 자동차가 어제부터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여 걱정이 되었다. 많이 낡아 사람의 힘을 빌려야 시동이 걸리기도 하고, 냉방이 잘 되지도 않았다. 차량의 교체를 요구하였지만 전혀 먹혀들지가 않았다.

강소성(江蘇省)의 성관(省館)인 남경도서관 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강소성도서관학회를 방문하였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남경도서관 부관장 겸 강소성도서관학회 상임 부이사장인 馬寧(Ma Ning)씨와 남경도서관 연구 부주임 겸 학회 서기장인 吳林씨가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강소성도서관학회의 활동 중 특기할 만한 점은 학회와 남경사범대학이 공동으로 야간과정에 도서관학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난 25년 간 1,000여명의 사서를 양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각 성의 학회가 독자적으로 사서를 양성하여 도서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절실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소성도서관학회는 한국도서관협회 및 한국의 개별 도서관과의 독자적인 교류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었다. 강소성도서관학회는 양 도서관협회와의 상호협력, 교류방안으로

1. 2005년에 임원(1-3명 정도)의 상호방문
2. 각 종 출판물의 상호교환
3. 양 기관의 연차대회시 상호방문 및 학술활동
4. 한국의 도서관과 강소성의 도서관이 상호협정, 교류할 수 있도록 교량역할의 수행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우리 협회 측은

1. 양 협회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2. 구체적인 여건의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양 기관에 대한 각 종 정보(학회, 도서관, 출판물, 공동 관심사 등)를 교환하며,

3. 양 기관의 산하 개별 도서관을 대상으로 교류 희망신청을 받아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의 모색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의 제안과 답변에 대해 양 협회(학회)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양 기관의 기관지를 통해 이 사실을 공지하여 상호교류의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협회는 IFLA 서울대회에 대한 성공적인 개최와 이 대회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중국도서관학회 및 강소성도서관학회 임원들과의 회동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공통점은 그들이 한국의 협회 및 도서관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필자가 이전에 중국의 대학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점과도 일치하며, 중국의 모든 분야가 국제 교류, 협력(합작)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 구내에 있는 남경도서관을 잠시 살펴 볼 기회를 가졌다. 그 규모와 시설이 매우 낡기는 하였지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타고 온 자전거가 도서관 앞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도서관 입구에 걸려 있는 붉은 글씨의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公共圖書館是人民的終身學校 江澤民.” 강택민 전 주석의 친필 휘호이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도서관이 수입해야 할 역할을 간략하고도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생각된다. 강소성의 성관(省館)인 남경도서관은 2005년 말 완공을 목표로 신축을 준비 중에 있었다. 그 규모는 1,200만 여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3,000여석의 열람석을 갖춘 총 77,860평방미터(지하 2층, 지상 8층)로 약 600여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남경도서관의 부관장인 마년씨는 2005년 말 도서관의 신축 개관행사에 우리 협회의 임원을 초청하겠다는 약속을 즉석에서 할 만큼 교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만약 이 초청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협회로서는 강소성 도서관인들을 대상으로 2006년 서울대회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한류(韓流)의 고조와 함께 중국 어디에서나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도서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전략을 지금부터 세밀하게 수립하여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남경도서관 입구에 걸린 강택민 전 주석 친필 휘호

남경도서관 방문을 끝으로 공식적인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짧은 일정동안 여러 중국도서관학회 인사들과 도서관인을 만나면서 깊은 동지애를 느낄 수 있었다. 그들도 우리처럼 여러 가지 미흡한 환경에서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헌신해 온 분들이다. 사랑과 존경을 보내드리고 싶다. 두 국가와 기관이 그 동안의 관계를 밀바탕으로 더욱 그 관계를 공고히 하고, 관계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2006년 IFLA 서울대회라는 절호의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잘 준비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우리 협회의 결집

된 힘을 발휘하기에 더 없이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해 본다. 